



일본기업, 엔고 영향으로 M&A 실적 세계 3위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2011년 일본이 전 세계 M&A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.
 - 미국의 딜로직(Dealogic)이 발표한 해외기업 M&A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1,866억 달러로 1위, 영국이 839.5억 달러로 2위, 일본이 797억 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일본의 경우 전년동월 조사 시 343억 달러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함.

- 2010년 M&A 규모가 10위였던 일본이 3위로 성장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.
 - 일본기업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지출을 줄이고 현금자산을 축적해 왔으나, 일본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자산운용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 필요성을 인식함.
 -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 약품이 14일 스위스 의약품회사 나이코메드를 14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일본기업은 내년에 소비재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인수를 진행할 전망이다.
 - 씨티은행 투자은행부문 대표는 M&A 시장에서 그간의 경험과 빠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이 세계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진단함.

-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보험회사들도 국내 보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보험시장은 물론 유럽과 미주시장에 M&A 또는 지분인수 방식을 통해 경쟁적으로 진출함.
 - 특히, 2011년 들어 일본 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 - 대표적인 사례로 다이이치생명의 중국 현지기업과 공동 보험회사 설립 및 호주 보험회사 인수, HSBC의 손보부문 매각에 일본 3개 대형 보험회사 입찰 경쟁, 니혼(日本)생명의 알리안츠에 5억 유로 출자, 메이지생명의 독일 보험회사에 출자, 미즈이스미토모해상의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회사 출자 등이 있음.

(WSJ 12/13, 니혼게이자이신문 12/14, 10/13, 7/5 뉴스 종합)